

박찬호 이어 최형우까지…KIA, 전력 구상 ‘빨간불’

삼성행 유력…사실상 최종 조율만 남은 상태
양현종·조상우 협상 주목…강제 리빌딩 수순

KIA 타이거즈의 2026 시즌 전력 구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이적에 이어 만형 최형우의 삼성행이 임박해있다.

1일 야구계에 따르면 최형우와 KIA의 FA 계약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KIA는 최근까지 타협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최형우와의 계약을 노린 구단은 KIA와 삼성 두 곳이다. 이 가운데 삼성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분위기가 기울었다. 계약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사실상 최종 조율만 남은 상태로 전해졌다.

최형우가 떠나게 되면 KIA의 전력 약화는 극심해질 전망이다.

올 시즌 최형우는 133경기에서 144안타 24홈런 86타점 타율 0.307 24홈런 OPS(출루율+장타율) 0.928의 맹활약을 펼쳤다. 또 KBO리그 최초 4400루타, 1700타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령 400홈런, 2500안타 등 각종 통산 기록도 갈아치웠다. 연세 에이징커브를 겪는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다. 그럼에도 그 능력을 스스로 증명했고, 팀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선수들을 이끌었다.

특히 올 시즌 박찬호, 오선우, 위즈덤과 함께 유일하게 규정타석을 소화하기도 했다. 박찬호와 위즈덤이 빠진 상태에서 최형우마저 이탈하면 남은 건 올해 첫 풀타임을 소화한 오선우 뿐이다.

이미 KIA는 주축선수였던 김도영, 김선빈, 나성범 등 야수진의 연이은 부상 약재로 고비를 겪

었다. 술한 부상을 겪은 나성범과 김선빈의 전 경기 출전은 사실상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 상황에서 규정 타석을 소화한 베테랑들이 모두 빠진다면 리빌딩 흐름을 꺾을 수 없다. 팀 타선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KIA가 내년 시즌 ‘원나우’를 노리려면 최대한 전력 누수를 막아야 한다.

올해 6명의 내부 FA 중 유일하게 계약에 성공한 건 좌완 이준영이다.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3억원, 연봉 6억원, 인센티브 3억원 등 총액 12억원에 잔류를 이끌었다.

남은 건 양현종과 조상우.

먼저 양현종은 선발 로테이션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다. 현재 외국인 투수 2명을 제외한다면 이의리 정도만 상수다. 김도현은 팔꿈치 피로골절로 변수가 있다. 왼쪽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재건술(토미존 수술)을 받은 윤영철은 내년 시즌 복귀가 어렵다. 김태형, 황동하 정도가 내년 선발 경쟁 후보에 올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07년 KIA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프랜차이즈 스타 양현종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KIA에서만 뛰었다. KIA의 2009년, 2017년, 2024년 우승의 영광을 함께한 선수다.

올 시즌 성적은 30경기 7승 9패 153이닝 86자책 101실점 171피안타 평균자책점 5.66. 수치로 따지면 좋은 성적은 아니다. 그럼에도 올 시즌 유



최형우



양현종



조상우

일하게 부상 없이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팀에겐 큰 역할이었다. 11시즌 연속 150이닝과 100타삼진이라는 대기록을 세운 살아있는 전설이기도 하다.

불펜 조상우 역시 중요한 카드다. 그는 올 시즌 72경기 6승 6패 60이닝 1세이브 28홀드 평균자책점 3.90의 성적을 기록했다. 팀 내 가장 많은 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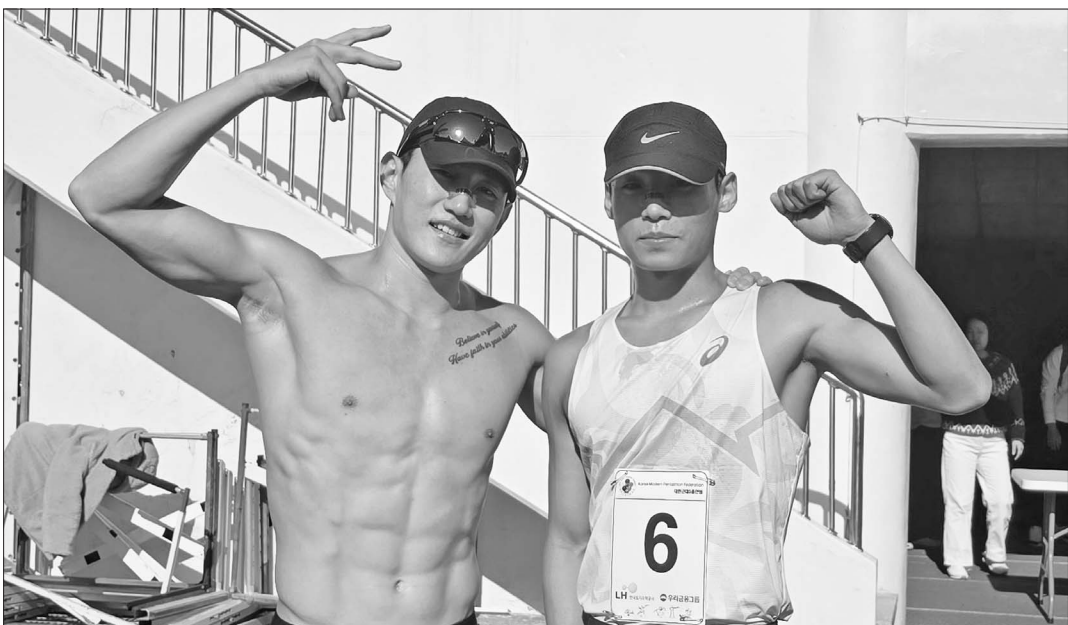
수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많은 경기를 책임졌다. 구위 저하로 시즌 중간 기록을 겪긴 했지만, 필승조로 꾸준히 등판하며 마운드를 지켰다. 그가 이탈한다면 전상현, 성영탁, 정해영 등 기존 불펜 자원들의 부하가 자연스레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재계약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양현종은 C등급으로 보상선수가 없는 데다, A등급 조상우는 여전히 유의미한 불펜 자원이다. 마땅한 대체 자원을 구하지 못한 KIA가 이들과 머뭇거리며 놓칠까봐 큰 부작용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전력 구상 시험대에 오른 KIA가 남은 FA 기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서창완(왼쪽)과 김영하는 최근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근대5종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전남도청 서창완·김영하, 근대5종 국가대표 발탁

국대 선발전서 각각 1·4위…광주시청 전용태, 3연패 도전

전남도청 근대5종팀 서창완·김영하가 태극마크를 달고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서창완과 김영하는 최근 부산체육고등학교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근대5종 2차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치러진 1차 선발전에서 상위 18명이 오른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 1·2차 선발전 성적을 각각 50% 비율로 합산해 국가대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남자 7명, 여자 7명 등 총 14명의 국가대표를 선발해 남녀부 각각 상위 4명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나선다.

이들은 대한근대5종연맹이 주관하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합류해 아시안게임 준비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 서창완은 펜싱(244점)·수영(298점)·장애물경기(370점)·레이저런(663점)으로 전 종목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과시, 가장 높은 종합 점수(1575점)를 기록하며 1위로 최종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실업 1년차 투기’ 김영하 역시 펜싱(224점)·수영(294점)·장애물경기(369점)·레이저런(671점)

을 기록,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4위(총점 1558점)를 차지했다.

서창완과 김영하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실업연맹회장배 등 주요 국내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경쟁력을 입증해왔다.

특히 김영하는 지난 10월 끝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남자일반부 5종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2관왕에 등극했으며, 서창완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광주에서는 전용태(광주시청)가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미 두 차례 아시안게임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 전용태는 아이치·나고야 대회에서도 개인전 3연패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이병권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은 노력과 열정의 결과이며 전남 근대5종의 큰 희망이다”며 “앞으로 국제대회에서도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운동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전남 선수들이 국제 무대에 나설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은 전남체육의 자랑이자,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진흥 유공자 선정

정재수 이사·강장원 대리 등 총 16명…“변함없는 관심·지원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사진)이 대한체육회 2025년 체육진흥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장을 받는다.

1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에서 추진한 '2025 지방체육진흥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정재수 광주시체육회 이사, 강장원 광주시체육회 직원 등 3명이 유공자로 선정됐다.

전갑수 회장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고른 발전을 목표로 ‘활력 넘치는 체육문화’, ‘평생체육으로 행복한 광주’, ‘시민과 공감하는 광주체육’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광주체육 발전의 중심이 돼 활약해 왔다.

취임 후 지난 3년간 광주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적소 배치, 훈련 환경 개선, 스포츠과학 지원체계 구축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혁신을 이끌었다. 또

시체육회와 회원단체 등 조직 운영에서도 투명과 공정을 토대로 광주체육행정 확립에 힘썼다.

특히 2028년 전국체육대회 광주 유치를 위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유치 확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2025 광주 세계3쿠션 당구월드컵 등 광주에서 개최된 국제대회도 적극 지원해 성공 개최하는 등 국제스포츠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재수 이사는 임원으로 활동하며 광주체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선수 육성에도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10월 목숨그물기 여자조정선수단을 창단하기까지 실무적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며 지역 조정선수 외부 유출 방지라는 과제를 해결했다.

강장원 대리는 지난 제106회 부산 전국체전에서 광주선수단이 종합 11위를 달성하는 데 지원



을 아끼지 않았고, 전국 소년체전 및 체육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며 우수한 체육행정 능력을 발휘했다.

이울러 동구 등 5개 자치구체육회 또한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상영 동구체육회 수석부

회장 등 총 13명이 지역체육진흥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게 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 회장은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애써주신 공을 인정받아 선정되신 체육인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과 선수가 불편함 없이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체육진흥 유공자 시상식은 이날 중 대한체육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도체육회-국립목포대, 운동재활 전문인력 양성 ‘맞손’

선수·지도자 직무역량 강화
스포츠산업 등 협력 체계 구축

전남도체육회가 국립목포대학교 RISE사업단이 스포츠 재활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1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B 201호 대강당에서 국립목포대학교 RISE사업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체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운동재활 전문가를 양성하고, 비교과 교육 참여 확대와 취업 연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립목포대학교 RISE사업단 운동재활 교육과정에 대한 전남도체육회 인준 부여, 종목단체 전문인력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 선수 및 지도자의 비교과 교육 참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대외협력관B 201호 대강당에서 국립목포대학교 RISE사업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 지원, 스포츠 교육 및 재활 관련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전남도 사학, 대학, 체육회가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체계가 본격 운영되면서 지역 스포츠

재활 및 교육 서비스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역 선수와 지도자들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 현장 경험을 쌓으며 전문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